

임실, 수상 열매 '주렁주렁'

군, 민선 6기 분야별 33개 수상 영예... 역동력 행정력 '결실'

임실군이 민선6기 막바지인 올해동안 두드러진 성과를 과시하면서 분야별로 크고 작은 상을 대거 휩쓸었다. 군에 따르면 2017년도 수상내역을 집계한 결과 지난 15일 현재까지 총 33개의 상을 받았다. 민선 6기가 들어선 직후인 2014년에는 6개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 15개, 2016년 22개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는 무려 33개의 수상기록을 남겼다.

이는 민선 6기에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막바지 단계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면서 대외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이끌어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임실군은 '열매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힘입어 '2017 고객감동브랜드 지수' 농촌도시 브랜드 부문에서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오래전부터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난 복숭아와 배, 고추 등 농산물을 잘 활용해 '열매=임실'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잘 살려내고, 이를 통해 임실N양념사업과 임실N과수사업 등 향토산업을 적극 육성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임실군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2관왕을 수상했다.



임실군이 민선6기 막바지인 올해동안 두드러진 성과를 과시하면서 분야별로 크고 작은 상을 대거 휩쓸었다.

군은 31개 사업 중 포괄보조사업(운암면 임도시설개설사업)과 선도사업(도농협력 농업인력지원센터)에 각각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임실N치즈는 효자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임실N치즈는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토했으며, 임실N치즈축제는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또한 임실치즈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는 전라북도 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평가에서 A등급 평

가를 받았다. 임실치즈마을은 행복마을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농림축산식품부)을, 삼계 두얼마을과 함께 전라북도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2관왕이 됐다.

심 민 군수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상을 받게 돼 열심히 일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큰 보람을 느낀다"며 "올해 거뒀던 성과를 발판삼아 내년에 더 주민들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다. 군민 중심의 군정 운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두지마을 생활여건 개선 주민 '만족'

순창군이 추진한 풍산면 두지지구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이 지난 15일 마침내 완료돼 마을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확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위생·안전 등 긴요한 공동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농촌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순창군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6억여원을 투입해 사업을 착공하고 올해 사업을 완료했다.

새뜰마을사업 착공전 두지마을은 노후주택비율 74.2% 슬레이트 지붕주택비율 48.7% 중 40가구였으며 70년대 쌓은 노후블럭 담장, 좁은 안길 등은 소방차나 응급차조차 진입이 어려워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군은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착공해 10개 소 342m, 저지대 생활오수처리 관로매설 67구, 재래식화장실정비 47구, 재해위험지구개선공사 2개소 등 긴급한 요소들을 해결했다.

주택정비 사업으로는 빈집철거 29

호,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15호, 집수리 14호, 경관지해시설 34개소도 정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두지연꽃 작은음악회를 마을축제로 발전시켰고 요가교실 등을 주민들의 주도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사업, "폐"농협창고 리모델링 사업 등 4개사업을 새뜰마을사업과 연계 추진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황숙주 군수는 "두지마을의 취약한 생활여건이 새롭게 탈바꿈되어 그동안 낙후된 마을 이미지를 탈피하고, 살고 싶은 마을로 대변신 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지지구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두지지구는 전국 16개 지자체 공무원 및 추진위원 등 400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성공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공모사업 신청 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사업 참여 후기 성과 등 내용이 수록된 '두지지구 새뜰마을 사업 준공 백서'도 지난 18일 발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 5년 연속 수상 영예

남원시가 전북도에서 실시한 '2017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5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는 매년 전복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청결도 향상, 청소행정의 효율성, 자원 재활용 확대, 우수시책 발굴 등의 4개 분야 13개 지표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우리 시는 자원순환 추진을 위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안내문 제작·배포, 지역 행사와 연계한 캠페인, 전광판 게시, 보도자료 배포,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또한 월1회 열린 남원 청결의날 행사를 실시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청소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였고, 음식물쓰레기용기 5명제 도입으로 폐기물 감량 및 시가지 청결에 노력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호국원, 안전사고 예방 나서

국립임실호국원(원장 박종덕)은 내년 3월말까지 산불예방 등 묘역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 마련했다.

종합대책에는 동절기 및 건조기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 및 결빙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묘역 및 현충시설 방문하시는 유족에게 한층 안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박종덕 호국원장은 묘역, 주변 임야 화재요인 점검 및 예방조치, 각 시설물 결빙에 의한 이상 유무, 화장실 작동 여부 확인, 묘역 비석 훼손상태 점검 등을 통해 국립묘지 다중시설 이용에 안전을 기하고 보존처 주관 따뜻한 보존 실천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박재갑 국립암센터 초대원장 초청 강의

“군민들이 느끼는 실질적 성과 창출의 해로”

황숙주 순창군수, 새해 비전 '실사구시' 선정

황숙주 순창군수가 새해 순창군의 비전을 담은 사자성어로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선정했다.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 보는 것과 같은 실현과 연구를 거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한서(漢書)' 하간현왕덕전(河間獻王德傳)에 나오는 '수학호고 실사구시(修學好古實事求是)'에서 비롯된 말로 청(淸)나라 초기에 고증학(考證學)을 표방하는 학

자들이 공리공론(公理公論)만을 일삼는 송명리학(宋明理學)을 배격하여 내세운 표어다.

조선시대 형이상학적인 '공리공론(公理公論)'을 배격하고 사실에 입각해 사회개혁을 요구했던 실학파가 강조한 실사구시를 황 군수가 2018년 비전으로 내세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군수는 민선 5~6기 순창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대내외적 평가를 받으면서,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7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실사구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동안 황

군수는 전통장류의 소스산업화와 미생물산업 육성,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업유통망 강화, 섬진강개발 등 관광자원 다변화를 통한 500만 관광객대를 열었다.

또 문화강군 순창을 목표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미래순창 100년 청사진을 튼튼히 한 상황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며서 군민들이 실제 피부로 체감하는 새로운 실질적 성과창출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평소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청렴과 성실, 공익을 우선시하는 황군수의 생활철학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사자성어라는 분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평생학습도시 남원시가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마련한 춘향골 아카데미 특별강연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박재갑 국립암센터 초대원장을 초청해 '명의에게 듣는다 속이 뻥 뚫리는 건강 이야기'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강연은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과 담배의 유해성을 주제로 100세 시대가 도래한 요즘 시대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요소이며 모든 암의 3분의 1은 담배만 피우지 않아도 예방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아 진행될 예정이다.

박재갑 원장은 서울대병원 외과의를 시작으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

료원 초대원장, 대한암학회 이사장, 서울대 압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해왔으며 2015년 전국 NGO단체연대에서 선정된 '올해의 닦고 싶은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가, 공공기관, 라디오, 전국 아카데미 강단에서 꾸준히 대중에게 건강강식에 대한 메시지 전달과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에 대한 입법을 청원하는 등 금연전도사 및 의료 평론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이번 춘향골 아카데미 강연을 통해 질병 예방과 건강지식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얻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설명회

순창군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순창군 문화의 집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계자(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및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최근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와 더불어 지역 사회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 공유를 통해 지역의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이션관

어드벤처 라이다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린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다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권역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매끈한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